아시스」이었는데 이제 그「오아시스」를 잃었으니 어찌 하리오。이 글 역시 밤중에 적어 본 것인데 異域의 旅舍에서 홀로 이것을 적게 되었으니 이것도 슬픈 일이다。

一九六二年 三月 七日 새벽

澗松의 心情

全濟玉

澗松先生이 作故하신지도 於焉間 한 달이 지나 四十九日도 未久하니 歲月이 참 빠르다。내가 澗松先生을 처음 뵈운것도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十數年이 지났다。그러나 그 동안 約一年쯤 내가 美國에 가 있었던 期間을 除外하고는 逐日 相面까지는 못 되나 매우 자주 뵐 수 있는 機會를 갖었었다。이 동안에 내가 先生에게 배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나 그 中에서도 書畵骨董에 對한 澗松 審正法이 가장 貴重한 工夫였을 것이다。그야 사람마다 鑑定、鑑賞法이 各各 있겠지마는 내가 感服한 것은 澗松은 一目瞭然한 劣等品이나 僞造品 또는 凶惡한 模造品일지라도 鑑定을 부탁하는 사람앞에서는 그 사람을 失望케 하는 言辭는 한마디도 말씀함이 없었고 다만 그저 괜찮은 것이더군요 하는 한마디 뿐이다。흔히 十中八九人까지는 그러면 값은 얼마쯤이나 되겠읍니까? 하고 市價를 묻는 것이 普通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 物件을 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하는것을 여러번 옆에 앉아서 들은 것이 記憶된다。그러나 鑑定받으러 왔던 사람이 다녀간 뒤에는 細細한 것을 모두 말씀하는 수가 적지 않었다。한편 眞品인 境遇에는 綿密한 觀察力을 傾注하여 多角度로 보고 또 본다면 그形態 長廣幅高 等을 재는 수도 있고 가지가지 細細한 것에 이르기까지 相當한 時間(때로는 몇日까지도)이 걸리며 同時에 參考될만한 物件이나 書籍까지도 들추어서 確實한 史的考證을 잡는 수도 흔히 있었다。이러한 것은 대개가 眞品인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中에서 稀貴品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러나 澗松은 決코 斷言하는 일은 나의 記憶으로는 한번도 들은 일이 없었다。考古學徒아닌 나로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느 것이 다음 가는 것인지 區分하기 매우 어려울 지경인데 나는 그야말로 옆에서 어깨 넘어로 보아서 澗松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風情風物을 나타낸 俗的 風俗畵 같은 것을 人物、山水、器皿、折枝 보다 더욱 嗜好 하신것 같았다。

以前일은 모르겠으나 最近에는 李朝 初期 白磁器와 石物을 많이 수집하셨는데 그렇다하여 高麗 靑磁에 對한 趣味가 薄弱해진 것은 決코 아니고 그前 日政時代와 같이 雲鶴紋 靑磁梅甁 같은 것은 지금에는 거의 求之不得이 된고로 斷念하시고 李朝 白磁中 時代的으로 蒐集品中에서 盜難 紛失當한 것을 메꾸기 위한 듯이 生覺되었다。

李朝器中에서도 銘字가 있는 것을 愛之重之 하셨던 것이다。이러한 物件이 눈에 띄면 값은 不計하고 買入하는 것을 여러번 뵈온 일도 있었다。

三、四年前 있은 일이었는데 어느 때 大學博物館에 갔더니 어떤 시골 사람이 高麗靑磁甁 같은 것을 갖고 와서 鑑定을 해달라 하였는데 그 때마침 眞否의 斷을 내리기 困難하여 내가 그 사람을 案內하고 梨峴宅을 찾으니 그것은 꽤 좋은 것이라고 그 사람 앞에서 하시고 돌려보낸 다음에는 그것이 倭人들이 鎭南浦에서 구어낸「新太郞」인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고 反問하셔서 저윽기 당황하였었다。美術界에 門外生인 나로서 澗松先生에게 人間으로 배운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나도 可能한限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猜忌하지 않도록 적지아니 努力하고 있으나 澗松先生에게 한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분의 착한 마음씨었다。即 남을 害칠줄 모르고 惡이 덤비어도 悠悠히 피할 수 있었던 그 분의 一生이다。또 한가지는 現代生活에 있어서 時間을 超克할 수 있었던 것도 貪나는 것의 하나이다。

뜬 구름과 같이 한가하고 흐르는 長流水처럼 꺼리낌 없이 悠悠히 生涯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분만이 享有할 수 있었던 特有한 生活環境이었을 것이다。